

성장통 ③

법은 비록 잔인할지라도 여전히 법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 책임 연령을 최소화시키는 법안은 여전히 필리핀 상원에 상정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성문화되고 나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집에서 쫓겨나 관리가 안된, 수용 포화 상태의 시설에 보내지게 될 것이고, 이들의 미래는 더욱 불명확해 질 것입니다. 재활 센터에서 아이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교정 되기만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시설에서 썩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일까요? 아니면 모든 시민들을 좋은 부모로 만들어서 내일의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 일까요?

계속되는 성장통

윤지희(직장인)



12년 전 캄보디아에서 찾은 비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의료봉사를 위해 다녀온 캄보디아는 오염된 빗물을 마시고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였다. 손바닥에 주먹만한 종기가 올라와 피가 쉴 새 없이 흐르고 파리가 꼬이는 데도 치료를 처음 받아 본다는 환자, 출산 중 반신불수가 된 두 아이의 어린 엄마와 관광지에서 물건을 파는 그녀의 8살 아들 ‘루삐’를 보면서 캄보디아의 참상을 목격했다. 의료봉사를 위해 동행한 의사, 간호사, 문화전도사,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훗날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갖게 된 순간이다.

청소년의 비전 코치

대학 생활에서 만난 친구 중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맹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적에 맞춰 입학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변경하고, 무조건 연봉이 높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백 개 이상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회의를 느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들이 청소년기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침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있던 나는 ‘청소년의 비전 코치’가 되어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도에 출범하여 선거권이 없어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NPO(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각종 사회문제에 관하여 대안을 찾는 ‘토론·토의대회’와 ‘자기주장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본인의 비전을 발견하는 ‘청소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매년 몇 백 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기주도형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학생 때부터 활동하던 친구가 대학생이 되어 청소년의회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것들을 나누겠다고 자원봉사자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물론 8년 동안 활동하면서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성장통을 겪으며 고민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몇 년 전부터 때때로 우리 단체를 공격하는 곳이 있었다. 비슷한 체험콘텐츠를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곳은 주식회사로 영리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따금씩 그곳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경찰조사를 받게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 우리에게 “포털사이트에 체험콘텐츠 소개 문구

가 중복외어 같이 노출되니 수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급기야 악의적으로 정보를 편집하여 우리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기사를 업로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정식으로 인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해왔던 시간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끝까지 치밀었다. 이들과 똑같이 우리도 공격하는 기사를 올릴까?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연대하여 싸울까? 고민하면서 ‘이에 는 이, 눈에는 눈이다’라는 생각으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지인 분께서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세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마음을 반성하고 단체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더니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전화위복이 되어 감사했던 경험이다.

계속되는 성장통

본래 3~12세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통증의 징후를 지칭하는 ‘성장통’. 올해 29살이 된 나는 언제까지 성장통을 겪을까. 아마도 평생 성장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성공, 명예, 사회적 영향력을 구가하는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을 받는 가운데, 끝나지 않을 이 성장통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

에 감사하고, 내가 겪는 시험에 저항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중심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12년 전 캄보디아에서 찾은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본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이 순간에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을 응원하고 싶다.